

#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루가 11,2

## 1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 말은 주기도문에서 가장 본질적인 내용으로 가르쳐진 기도형태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의 문제를 다루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이 그러한 기도를 실제로 할 수 있는가, 또는 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취급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는 심리 사회학적인 문제로 나타낼 수 있으나 우리는 공관복음서 저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예수의 가르침에서 우리의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루가의 특수자료에서만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취급하고 있는 각기 다른 비유들을 발견할 수 있다. 처음에 ‘간구하는 친구에 대한’ 비유(11,5-8)가 나타나며, 그 다음에는 ‘간구하는 과부에 대한 비유’(18,1-5)가 있고 마지막으로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유(18,9-14)가 나타난다. 여기에는 세 가지 각기 다른 형태가 서술되어 있다. 첫 번째 사람은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한밤중에 그를 찾아온 손님에게 빵 한 조각도 줄 수가 없다. 두 번째 형태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빼앗긴 어느 과부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세 번째 사람은 세리인데, 그는 자신의 불쾌한 직업 때문에 국수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비사회적인 인간’이며, 따라서 그 당시 사회로부터 소외당한 자이다.

첫 번째 경우에서 우리는 그의 친구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있는 어떤 남자를 볼 수 있는데, 까닭은 그가 너무

나 가난했기 때문이다. 이 과부 역시 상대방의 약탈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수 있다. 그러나 또한 단순히 그녀는 '강자'로 인해 자신의 인간적인 가치를 빼앗겼을 수도 있다. 하여간 그녀에게는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생활 요소가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아주 졸라뒀고 그녀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물러나지 않았다. 세리에 관한 비유에서는 그 자신의 비인간화 때문에 고통받는 한 인간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의 기도는 실제로 그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세리의 기도는 참된 기도를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업적을 표명하려는 바리사이인의 기도와 현저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예는 모두 실제적이며 진지한 기도를 하게 하는 같은 동기가 들어 있는데, 말하자면 인간의 실존적인 고통을 말하고 있다. 순수하며 진실한 기도는 배부른 사람에게서는 나오지 않으며 다만 실제로 무엇인가 부족한 자, 즉 고통에 시달리는 자에게서만 우러나온다. 그리고 '하느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기도는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자들에 의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

## 2

가난하거나 또는 사회로부터 배척당하면, 즉 소외당하면 어느 경우에도 '하느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가난하기 때문에 부유함을 간구할 수 있으며, 또는 억압당했기 때문에 권력을 탐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곤궁이란 인간을 유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루가 12장 31절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예수의 말씀을 볼 수 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러한 권고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따라서 실제로 곤궁에 빠져 있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말이다. 그들은 잘못된 길을 가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수는 그들에게 들에 있는 새와 백합의 삶을 서술함으로써 하느님이 이러한 것들조차도 어떻게 돌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가난 때문에 좌절할 수도 있고, 또는 끊임없이 근심해야 하는 것을 체험함으로써 잘못된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전제와 더불어 예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먼저 너희들은 하느님 나라를 구하라.” 이것과 더불어 예수는 결코 그들의 상황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살기 위한 그들의 노력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기도는 가난을 극복하는 것과 대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러면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러한 연관성 속에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고려해 보자.

우리가 이 기도를 누가 실제로 자신의 기도로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고 묻는다면, 이것에 대한 대답은 기도의 내용 자체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기도와 관련시켜 볼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구체적인 소망이 따라 나온다.

맨 처음의 간구는 일용할 양식에 관한 것이다. 일용할 양식! 따라서 한 달, 일 년, 또는 평생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즉 하루를 위한 양식을! 이 간구가 그렇게 빨리 추상화되어서는 안 된다. 까닭은 살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어떠한 보장도 받고 있지 않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이러한 간구를 출애굽 때에 역사적인 만나 사건의 배후에 서서 곧 이해했다. 예수 주위에 모여 있던 청중들 자신도, 즉 ‘무리들’(ochlos)도 이 기도를 완전히 글자 그대로 받아들였음에 틀림없다. 까닭은 그들의 대다수가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 투쟁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과는 달리, 예를 들어 ‘부유한 농부의 비유’(12,16-21)에

나오는 부자에게는 이러한 간구를 진정으로 진지하게 받아 들인다는 것이 불가능했을 수 있을 것이다. 그에게는 그러한 소망을 표현할 필요가 없었다. 그의 근심은 그가 소유한 것을 지키는 데에만 해당되었다. 일용할 양식에 관한 간구 다음에 나오는 다른 두 간구는 낮은 자, 즉 가난하거나 또는 무력한 자에 의해 실제로 기도될 수 있다. 까닭은 사실상 강한 자 또는 부유한 자들만이 소위 약한 자와 힘없는 자 및 가난한 자들에게 무력행사나 또는 다른 짓들을 통해 실제로 범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실제로 용서할 수 있는 자는 바로 억압받는 자이다.

세번째 간구도 마찬가지다. 이 간구도 똑같이 그러한 자들에게만 해당될 수 있다. 까닭은 이미 위에서 언급했듯이 곤궁은 인간을 시험에 들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권력을 가진 자 또는 부유한 자는 실제로 언제나 의도적인 불법을 행하는 자이다. (더 많은 것에 대한) 욕심이 시험과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 소유하고 있는 자는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감히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예수가 주기도문을 가르친 자들은 배부르거나 또는 힘 있는 자들일 수 없고, 권력을 가진 자와 부를 가진 자 아래에서 시달림을 받은 자들일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간구는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느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는 첫번째 축복의 말씀도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여기에서 가난한 자들이 직접 하느님 나라와 결부되어 있다. 루카에서 축복의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가난한 자들은 실제로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여기에서도 원래적인 의미를 너무 성급하게 옮겨놓거나 그 의미를 추상화해서는 안 된다. 물론 마태오의 이해에 의하면 그가 ‘마음’이라는 말을 첨가함으로써 가난한 자들이 이미 해석되어 있다. 따라서 마태

오에 의하면 가난은 경제적인 상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실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마태오가 경제적인 가난을 제외시켰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축복의 말씀에 나타나는 가난을 마태오의 의미에서 이해한다 할지라도, 하느님 나라를 갈망하는 배부른 자는 없으며, 가난에서 고통받는 자만이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간구를 실제로 인지할 수 있으며 이 간구를 진지하게 기도드릴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임박한 하느님 나라에 직면하여 가난한 자들에 대한 축복의 말씀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 3

끝으로 우리가 큰 만찬에 관한 비유를 루가의 이해(14,16-24)에 따라 고찰해 보자. 이 비유는 같은 동기를 반영해주고 있는데, 그러나 특정한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하느님 나라에 대한 비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하느님 나라가 무엇이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 서술은 하느님 나라의 도래에 직면하여 두가지 각기 다른 인간의 계층을 성찰하고 있다. 한 층은 하느님 나라에로의 초대를 거부하는 자들을 특징지우며, 다른 한 층은 그 초대를 단순히 받아들이는 계층이다. 한 층은 가진 자들인 반면, 다른 한 층은 가장 가난한 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즉 가난한 자들, 불구자들, 절름발이들, 맹인들 등, 간단히 말하면 이들은 소외된 자들이다. 첫번째 사람들은 원래 초대된 자들이었으나, 다른 사람들은 초대받은 자들이 아니다. 첫번째 사람들은 초대를 거절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진 자들이었고 바로 그 때문에 하느님 나라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과 대조적으로 두번째 계층은 초대를 순순히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두 계층을 다음과 같이 성격지을

수 있는데, 첫번째 계층에서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기도를 결코 스스로 요구할 수 없는 자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반면, 다른 계층은 실존적인 필연성에서 이 기도만을 요구해야 한다. 이 두 계층의 구체적인 차이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마태오의 이해는 이 두번째 계층의 구체화가 일반화를 통해서 제거되면서 이러한 대조를 퇴색시켰다. 루가의 이해에 의하면 가장 가난한 자들은 복되다고 일컬어진다. 까닭은 그들은 하느님 나라로의 초대장을 무조건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거절하는 자들은, 부유한 자들에 관한 대조가 명시되어 있는 루가에 의하면 축복의 말씀에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처럼 바로 그들의 가진 것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은 소유 또는 재산이 임박한 하느님 나라에 직면하여 구별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간구는 초대를 위한 전제이다. 초대 자체는 분류되지 않고, 모두에게 열려있다. 초대는 현존하는 우선권도 거부하지 않는다. 그러나 초대에 대한 인간의 태도는 두 계층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하느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간구는 모두에게 말을 걸어온다. 모든 사람은 하느님 나라를 필요로 한다. 달리 말하면, 하느님 나라에로의 이러한 초대가 배타적인 성격을 나타낸다면 따라서 이것과 더불어 하느님 나라의 본질이 특징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는 전적으로 인간의 태도, 즉 그가 이 초대에 자신을 열어 보이느냐, 아니면 이것과는 반대로 자신을 닫아버리느냐 하는 태도와 결합되어 있다. 하느님 나라는 사회적인 상황에 부착되어 있지 않다. 달리 말하면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기도는 무조건 부유함 및 소유물과 대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부유함은, 이러한 간구를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해진다. 인간들이 이러한 간구의 내용에 따라 실제로 살 수 없다면, 이것은 그들이 임박한 하느님 나라로부터 제외되

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고찰은 우리에게 복잡한 문제를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겨난다. 이 세상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이와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희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가? 달리 말하면, 안락하게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와 그리고 가난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느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간구가 정확히 같은 의미를 가지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가진 자는 가지지 ‘앎은 것처럼’(hos me)”라는 바울의 진술을 하나의 열쇠로서 기억한다. 이러한 바울의 실천(Praxis)은 확실히 해결의 지침서일 수 있다. 그러나 hos me의 윤리가 현재의 소유를 계속해서 유지하며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향윤리(Gesinnungsetik)로만 잘못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은 진정한 사랑의 행위를 실현하기 위해서, 소유에서부터 자신을 실제로 독립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간구가 진지하게 말해질 수 있을 것이다.

## 4

마르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문귀로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다. 이 말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 복음서가 예수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예수가 나타나지 않았었다면, 그의 복음서도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1장 15절에는, “때가 찼다.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되어 있다. 이 말은 잘 알려진 바대로 예수가 행한 설교 내용의 요약이다. 여기서 우리는 두번째 요점을 발견하게 된다. 즉, 마르코복음은 하느님 나라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말하자면, 하느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는다면 그의 복음서는 있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한 예수가 나타나지 않았었다면 하느님의 나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

었을 것이다. 이 하느님의 나라의 의미를 복음서들 가운데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오랫동안 논쟁의 초점이 되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하느님 나라의 뜻을 다만 예수의 가르침 안에서만, 예를 들자면 비유 안에서만 찾고자 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이다.

하느님의 나라가 진정 무엇인가를 복음서들 안에서 찾고자 한다면 예수의 행위 전체를 숙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마르코복음 첫 구절의 의미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 구절을 본인은 이렇게 이해한다. 즉, 마르코는 어떤 교리적 진술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가 쓰려고 하는 것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의 복음의 내용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단지 하느님 나라의 선포자요 설교자에 지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그는 그의 생애를 통하여 하느님의 나라를 실현시켰다. 예수의 말씀이나 메시지만을 강조하는 일반적인 오류를 제거하기 위하여 본인은 ‘그의 생애를 통하여’라는 말을 일부러 강조한다.

물론 예수의 생애는 여러가지 다른 방법으로 특징지어져 있다. 그러나 마르코가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가 군중(ochlos)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다. 마르코는 예수를 홀로 있는 모습으로 묘사하지 않았다. 특히 갈릴래아에서 예수는 거의 언제나 오클로스(ochlos)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마르코복음을 세밀히 관찰해 본다면, 오클로스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예수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예수가 있는 곳에 오클로스가 있고, 오클로스가 모인 곳에 예수가 찾아 간다. 마치 오클로스는 예수의 일부이고, 예수는 오클로스의 일부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오클로스가 예수의 배경은 아니었다. 그런데 오클로스가 누구냐는 것을 물으려면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를 살펴보면 된다. 그들은 병든 자, 가난한 자, 낙담한 자들이었고, 그들 중에는 세리와 여인들과 어린이들도 있었다. 사실 그들은

당시의 기존체제에 의하여 '죄인들'로 낙인찍힌 자들이었다. 그러므로 이 글의 주제가 취급하고 있는 가난한 자들을 이러한 오클로스와 관련시킬 때, 그들을 단순히 루가가 묘사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가난한 자들로만 볼 수 없고, 보다 넓은 의미의 가난한 자로 보아야 한다. 그들은 한마디로 특징지우자면 소외된 자들이다. 즉, 그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의 기존체제에 적응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사회의 체제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다. 그들은 지배계층에 의하여 그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박탈당한 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말로만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자신을 열고 자신과 일치시킨 대상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그는 오클로스를 아무런 조건없이 그들의 생긴 모습 그대로 받아들였다.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예수는 오클로스를 친구로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그들을 자신과 동일시하였다. 예수가 <죄인>이라고 불리운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친교를 가졌다고 하는 사실은 그가 현실적인 삶 속에서 그들과 친교를 가졌다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다. 예수는 복음을 선포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 속에서 실제로 친교를 실현하였다. 그는 단순히 자신이 미리 가지고 있던 것을 그들에게 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오클로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것은 오클로스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전적인 긍정이다. 예수의 이러한 태도가 실제로 그의 죽음을 초래하였다. 까닭은 그의 태도가 현상, 기존체제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이다. 현상과의 극단적인 갈등은 특히 마르코가 기술하고 있는 예수의 수난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마르코는 오클로스를 예수의 가장 친근한 친구들로 묘사하고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그의 최대의 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예수가 가난한 자와 부자, 억눌린 자와 지배계급 사이의 갈등 한복판에 서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런데 예수는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섰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였던 것이다. 또한 우리는 예수가 '나라' (Reich)로 형상화한 악마적인 세력에 대한 그의 투쟁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이와 같은 예수의 태도를 가능하게 한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예수가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확신하였다고 하는 사실 이외에 다른 것일 수가 없다. 그 확신은 팔복 중 첫번째 복에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다.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